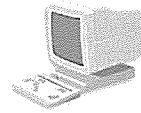


MS 사건의 역사적 의미



강철규 | 공정거래위원회 (前)위원장

MS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20여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서 위원회의 법 집행능력과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과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MS 사건은 그 규모나 복잡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그 처리과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첫째, 세계적인 최첨단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사, 시정조치를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번 MS 사건 중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범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

둘째,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사실확인 및 경제분석을 실시하여 범위반 논리를 전개하였고, 심리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적용능력이 한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서 MS사는 미국과 한국의 최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미국 및 한국의 우수한 경제학자,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광범위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보고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도 MS사가 제출한 답변자료의 내용을 반박하고 MS사 결합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법률가,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은 물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Stiglitz 교수 등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도 MS사 행위의 반경쟁성을 입증하는 연구논문, 경제 및 기술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셋째, 심의과정에서 MS사는 물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까지도 최대한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도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의 의미에 걸맞도록 전례가 없음에도 2005. 7. 13.부터 10. 26.까지 모두 7차례, 총 40여 시간 동안

※ 독자 안내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자 개인 자격으로 기고한 것으로서 경쟁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 왔습니다.

전원회의를 속개하여 MS사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줌은 물론, 심사관, 증인,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심의종결 후에는,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 IT 산업의 경쟁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콘텐츠 사업자, PC 제조업체, 웹사이트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문가, 미디어 사업자, 메신저 사업자, SI(System Integration) 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초거대기업을 상대로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였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인 MS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많은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한다.

먼저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사업자 및 메신저 사업자들은 MS사와 동등한 조건하에 기술력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확충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경쟁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익창출의 길이 기술혁신(innovation)과 소비자이익 극대화에 있음을 국내외 업계에 다시 한번 인식시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도 독점이 아니라 기술혁신경쟁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이제 무거운 책임을 벗었지만 MS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많은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 감사를 드린다. **경쟁지킴이**

